

부조리에 맞서는 부조리 JTBC 드라마 '밀회'

김영은

여자 나이 마흔 살. 품격을 강요당하는 참 불편한 숫자. 남부러울 것 없는 여주인공 오혜원(김희애 분)은 그래서 참 능수능란해 보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보였나보다. 그리고 그런 그녀가 결코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던 '어린애' 이선재(유아인 분)는 오혜원이라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며 그녀의 삶을 격렬하게 흔든다. 이로 인해서 어른들의 세계에는 파문이 일고, 그 치부 역시 낱알이 까발려지기 시작한다. 그들은 참 남부러울 게 많고, 온전하지도 않으며, 부조리의 온상 그 자체라는 것이. 스무 살 어린애와 마흔 살 어른의 비밀스러운 연애. 드라마 '밀회'다.

불륜 논쟁이 지지부진해지는 이유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불륜은 주로 그 자체가 제거되어야 할 적으로 상정되어왔다. 선봉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내의 유혹'은 불륜을 저지른 전남편에게 복수하는 아내의 일대기를 그리며 막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을 고수했다. 밀회를 두고 불륜 조장이니 미화니 하는 논란이 일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밀회의 시점은 불륜의 피해자가 아닌 불륜의 당사자들에게 닿아 있다. 매 회마다 시청자들은 면죄부를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선악의 기로에서 조마조마한 줄타기하는 우리의 불행한 연인들, 혜원과 선재에게 말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불륜 논쟁을 해명하는 데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불륜을 옹호할 생각도, 미화할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주인공 혜원이 말하지 않는가. '세상에서 이건 불륜이고, 죄악이다. 사랑이라고 말 못 한다'고. 불륜이고 죄악이니 돌을 던진다 해도 있는 대로 다 맞겠다는 태도다. 그건 대수롭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니 불륜에 속지 말자. 불륜은 그저 훌륭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럴듯한 도구일 뿐임을.

혜원과 선재는 불륜이 맞다. 그러나 밀회는 불륜 드라마가 아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의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고발' 드라마 썸 될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적들은 서한예술재단이라는 조직 속에 포진해있는 권력들이다. 클래식 마피아, 스폰서, 부정 입시의 주체들. 불륜 논쟁에서 길을 잃으면 이 드라마가 정작 말하고 싶은 바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어린 선재는 몰랐던,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른들의 세계'를.

병든 어른들의 세상

예술재단은 온갖 비리로 얼룩져있다. 필원(김용건 분)이 재단을 설립한 것은 비자금 조성과 자금 세탁을 목적해서였으며, 성숙(한혜진 분)은 예술에는 감흥이 없는 호스티스 출신의 허울 좋은 이사장이다. 영우(김혜은 분)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시시각각 혜원 부부의 숨통을 죄며 갑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원은 어떠한가. 이들 셋의 사이를 줄타기하며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내는 행동대장이 아니던가. 어찌 보면 친구의 아버지인 필원의 여자 문제를 돌봐주고, 성숙의 비자금을 관리해주며, 영우의 끊임없는 외도 역시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비밀과 거짓말을 흘리며 더 나은 자리로의 신분상승을 노린다. 그녀가 이들의 부조리로부터 무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명백한 동조자로서 그들 사이를 오간다. 밀회 속의 모든 인물들은 이토록 서로 다른 야욕을 품은 채 비밀스런 회동을 갖는다.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밀회라는 타이틀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 비단 선재와 혜원의 만남만이 아니다. 이들 모두가 곳곳에서 밀회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는 지독하게 병리적인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병들었음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상류사회에 속해있다는 계급의식은 아편이 되어 이들에게서 통각을 앗아 갔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닭의 벼슬(노블레스)과 달걀노른자(오블리주) 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이 말은,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하는데 있지 않고 알을 낳는 것에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들은 벼슬만 다듬으며 알은 낳지 않는 닭이다. 명예만을 취하고 의무는 행하지 않는 귀족들이다. 껍데기뿐인 자기최면 속에 존재하는 알맹이는 지독한 천박함뿐인 것이다.

혜원은 그들의 벼슬에 시선을 빼앗겨 그들만의 세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영우의 갑질 속에서 그녀의 좌표는 여전히 주변인임이 드러난다. 뺨을 얻어맞고, 폭언을 듣는 것은 예사요, 자신의 남편 준형(박현권 분)마저도 언제든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로 패악을 부리는 영우 앞에서 그녀는 늘 비참한 약자가 되고 만다. 연봉 1억의 예술재단 기획실장은 로열패밀리들과 아무리 긴밀하고 중추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해도 을일뿐이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나타난 선재는 각성제가 되어 혜원의 병을 꼬집는다. 혜원은 선재를 통해서 다시금 통각을 깨우친다. 망각의 늪에 애써 묻어두었던 스스로의 좌표. 자신은 그저 우아한 노비였음을, 고결한 옷을 입은 천민이었음을 말이다.

불륜이 사랑으로 편입되는 순간

이쯤 되면 걸만 번지르르한 '병든 어른' 혜원이 선재에게 이끌리는 것은 가히 당연한 일이다. 둘의 공식적인 첫 만남에서, 선재가 자신의 천재성을 십분 발휘하며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녀 역시도 피아노로 시작했던 시절이 존재했었다. 계급 격차를 자신의 재능으로 해소해보려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젊은 날

에 그녀의 근육은 혹사를 당했고, 그로 인해 생긴 건초염은 마침내 그녀에게 피아노를 앗아갔다. 그러나 일은 더 쉬워졌다. 순수함보다 효과적인 영악함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러 다시 마주한 순수 앞에 그녀는 자신의 초상을 본다. 젊은 날의 초상을.

더구나 그녀의 삶에 제대로 된 사랑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남편 준형과 쇼윈도우 부부로 평생을 산 그녀에게, 이성애에 대한 설렘과 뜨거운 사랑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상류사회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배신당한 첫사랑과 같은 것이었다. 스무 살의 패기로 불길같이 뜨겁게 다가오는 선재 앞에서, 그녀는 아무런 선행학습 없이 단신으로 선 초짜와 닮은 꼴이었다. 사십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감정의 풍랑이었던 것이다.

선재의 경우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학벌은 물론 킥배달이라는 직업군으로 표상되는 그의 사회적 지위는 최하위층이라 봐도 무방하다. 재능이 있고 열망이 있어도 제대로 된 배움을 누릴 수 없었던 선재에게 ‘특급 칭찬’을 해주는 최초의 상대는 어떤 의미로 작용하겠는가. 더구나 결정적 시기에 세상을 떠나고 만 어머니의 부재, 그 빈자리에 들어선 혜원의 존재는 그에게 그 자체로 벽찬 감격이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한 여자가 떠나고, 운명처럼 나타난 혜원에게 최면에 가까운 각인이 된다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 재능에 함께 교감까지 할 수 있는 멋진 여성은 단숨에 그에게 ‘여신’이 된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에 후광을 비추며 나타나, 자신을 구원해 준 평생의 은인. 둘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단단하게 결속된다. 감히 쉽게 사랑이라고 이름 하지도 못하는 감정을 위해 인생을 내거는 것이다.

마지막 회에서 법정에서 선 혜원은 말한다. “내 인생 최고의 명장면이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 놓은 것도 아니고, 절절한 고백의 말을 해 준 것도 아니다. 그 친구는 그저 정신없이 걸레질을 했을 뿐이다. 나라는 여자에게 깨끗한 앉을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자신의 여신님을 누추한 장소에 모신 것이 죄스러워 온 정성으로 걸레질을 했을 선재를, 그 걸레질 한 번이 형편없이 공허한 한 여자에게 그토록 감격스러웠다는 사실을, 누가 비난 할 수 있을까.

오혜원이 지킨 것은 이선재가 아니다

선재와 금기의 첫날밤을 보내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혜원은 선재에게 문자를 보낸다. 더러운 건 내가 다, 그것들을 상대하는 것 역시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그저 숨어서 너 자신을 지키라고.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 권력의 암투와 부정부패 속에 홀로 내던져져 지독한 싸움을 해쳐나간다. 스물이라는 나이 차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어른과 아이의 분명한 경계였다. 선재는 일견 무능해 보일만큼이나 혜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한계가 그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혜원의 보호 아래에 있는 포지션을 고수한다. 이것은 기존의 드라마들과는 사뭇 다른 그림이다. 비슷한 시기에 방송되었던 tvN 드라마 ‘마녀의 연애’에서는 여주인공보다 열 넷

이나 어린 스물 몇의 청년이라고는 믿기 힘들만큼이나 성숙한 남주인공이 두툼한 스펙과 어른스러운 자상함으로 연상의 연인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에 있어왔던 남녀의 고정된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였다. 열 넷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나이 차이, 그 현실적인 장치를 두고서도 별다른 차별화는 없었다.

그러나 밀회는 달랐다. 그들이 단순한 보통의 연인도, 보통의 남녀도 아니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의 선제는 때 묻지 않은 예술성과 순수성의 대변자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대한 혜원의 보호본능은 특별하다. 그의 재능을 썩히지 않기 위해, 그가 가난한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꺼이 그의 방패막이가 된다. '언젠가 꼭 너 같은 애가 쿼배달 하면서 유튜브로 네 연주를 따라 친다면 그걸로 족해'라 말하면서, 그녀는 사랑을 지키려는 여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받아야 할 예술을, 순수를 지키려는 '어른'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 남아 있는 일말의 순수함을 지키려는 노력이며, 비로소 제대로 '어른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결국 자신의 병을 고치는 집도익는 그녀 자신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제 발로 병든 어른들의 세상을 걸어 나오기까지 말이다.

밀회는 불륜이라는 통과의를 거쳐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한 어른의 '성장'드라마이다. 불륜이라는 부조리로 더한 부조리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륜이 정당화되고 이해될 만큼이나 극악한 사회의 단면과 마주하게 된다.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쥔, 동시에 그 권력에 어울리는 인성을 갖추지 못한 세력들 앞에서 불륜이라는 키워드는 너무나 소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 밀회가 영리하게 고발하고 있는 진짜 적을 찾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걱정해도 될 것이다. 드라마는 현실의 거울이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작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부정한 연인들이 부정한 권력에 이용당한다면, 돌 맞고 내쫓기는 것보다 천만 배 더 큰 치욕일 것 같다'고.